

## 영화 <마녀>를 통해 본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

심우장\*

- I. 문제제기
- II. <아기장수> 서사와 <마녀>
- III. <마녀>의 전복적 사유와 <아기장수>
- IV.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
- V. 맺음말

### <국문초록>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민중의 저항성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담론에 지나치게 예측되어 있어서 해석의 확장성이 약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본다. 대등한 서사를 갖고 있는 신화류에 비해서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에 관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소략했던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화 <마녀>를 통해서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고 작품의 현재적 의의도 새롭게 궁구하고자 했다. <마녀>는 <아기장수> 전설과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결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마녀>의 인물구도는 <아기장수>의 인물구도와 일치한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아기와 그런 아기의 뛰어난에 두려움을 느끼는 어머니, 그리고 아기를 죽여 없애려는 권력자의 삼각구도가 두 작품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 또한 출생 전후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이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확인하게 되며, 죽음을 피해 이주하는 과정이 있고, 특별한 재생 공간에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는 등 세부 스토리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다.

---

\*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그러면서도 <마녀>는 <아기장수>와 견주어보면 전복적 사유를 담고 있다. 주인공 캐릭터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설정하면서도 여성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아기장수>가 갖고 있는 반여성성을 뒤집어 놓는다. 양가적인 성격을 갖는 어머니도 분화되어 나타나는데, 어머니 캐릭터가 갖는 모순성을 해소하고 어머니에 의한 자식 살해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녀>의 주인공인 구자윤은 아기장수와 다르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결국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닥터 백을 유인하는 지략을 보여줌으로써 작품 최대의 반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녀>를 통해 <아기장수>를 다시 소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또 다른 형태의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때문이다. <마녀>에서는 주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도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에 직면하여 배제나 찬양이 아닌 공존의 논리로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모순을 풀어 보려 한 작품이 <마녀>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아기장수> 서사는 탁월성에 대한 새로운 서사와 접목되어 계속해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핵심어: <아기장수> 전설, 영화 <마녀>, 이야기스키마, 탁월성, 반여성성, 저항담론, 포스트휴먼

## 1. 문제제기

<아기장수> 전설 이해의 요체는 아기장수의 죽음에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기장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어머니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아기장수와 용마의 죽음에 대해서는, 민중의 좌절감 혹은 패배감, 자기반성의 표현이라는 해석과 함께,<sup>1)</sup> 지속적으로 반체제적 인물에게 재현

1) 최래옥,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제11집, 한국민속학회, 1979.

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저항성, 영웅의 회귀와 이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출된 바 있다.<sup>2)</sup> 자식을 직접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안신(保守安身) 의식이나 비극성의 확장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sup>

문제는 이러한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이해가 저항담론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다.<sup>4)</sup> 판근으로 대표되는 지배권력과 그것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된 어머니(혹은 가족, 친척, 마을사람까지)를 아울러 묶고, 이에 대항하여 아기장수로 상징되는 민중의 저항의식이 비극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는 구도이다. 물론 좌절감이나 패배감과 같은 부정적인 해석을 넘어, 저항성이나 기대감 등의 긍정적인 함의로 해석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작품을 저항담론이라는 정치적인 구도 속에 쉽게 고착시킨 것은 아닌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기장수> 전설이 한국의 대표 설화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확장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저항담론의 확장성이 높지 않아서 보편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 이때문에 특히 <아기장수>와 관련해서는 현재적 의의를 폭넓게 궁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영웅의 일대기라는 핵심 모티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재적 의의를 논하고 있는 <주몽신화>를 비롯한 신화류에 견주어보면, <아기장수> 전설은 대등한 서사 모티프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적 의의를 찾는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점은<sup>5)</sup>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사실 저항담론의 시작은 아기 ‘장수’ 이야기를 민중 ‘영웅’의 틀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고귀한 혈통을 지닌 귀족적 영웅이야기와 구분되는 미천한 신분의 민중적 영웅이야기의 하나로 아

2) 천혜숙,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제1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6.

3) 천혜숙, 『아기장수』,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493~494면.

4)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8면.

5) 강미정, 『<아기장수>의 서사적 특성과 영화 <하이랜드>와의 상관성』,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제163호, 국어국문학회, 2013; 황승엽, 『<아기장수> 설화에 나타난 공포와 그 현대적 지속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 『구비문학』 제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소, 1981.

기장수 이야기를 분류하면서,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기장수의 죽음을 저항의 원천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생래적 힘의 탁월성’<sup>7)</sup>이라는 ‘장수’ 이야기의 핵심이 영웅적 자질의 일부로 축소되면서 의미는 보다 분명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단혀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저항담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2018년 작품인 미스터리 액션 영화 <마녀><sup>8)</sup>에 주목하게 된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마녀>의 주인공이 <아기장수>처럼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점, 그것도 아이를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 죽이려 한다는 점, 죽이려는 이유가 아이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점은 <아기장수>와 무척 닮아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기장수> 이야기의 핵심 골격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마녀>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기장수> 전설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의에 대해 천착하고자 할 때, 영화 <마녀>는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기장수> 전설의 주요한 모티프를 비슷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있고, 익숙한 저항담론의 틀에서 살짝 비껴나 있으면서도, 현실적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흥행에도 성공한 문제작이다. 따라서 <마녀>라는 영화의 프리즘을 통해서 <아기장수> 전설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를 새롭게 궁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천혜숙, 앞의 논문, 134면.

8) <마녀>(2018), 박훈정 감독, 김다미, 조민수, 박희순, 최우식 출연, 영화사 금월 제작.

## II. <아기장수> 서사와 <마녀>

### 1. <아기장수> 서사

<아기장수> 전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장수이야기의 보편성을 갖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게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늘에서 내린 장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아기장수> 전설을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9)</sup>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아기장수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유형은 위험을 느낀(혹은 죽임을 당한) 아기장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가 어머니의 발설로 그 장소가 관군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이다. 두 유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인 유사성과 상호 교섭 양상이 뚜렷하여 독립적인 유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유형을 기본형으로 보고, 두 번째 유형을 확장형으로 보는 시각이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sup>10)</sup> 기본형은 전설의 원초적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특정한 사건이 존재하고 그 사건에서 연유하여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는 구술문화적 전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봉우리나 연못 등에 이야기를 투사하고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삶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이다.<sup>11)</sup> 분포가 넓고 많은 수의 각편이 채록된 것이나 안정적인 유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기본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기본형의 일반적인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A.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

- ①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 ②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 ③ 이 일을 계기로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한다.
- ④ 화가 미칠까 두려워 아이를 죽이려 한다.

9) 천혜숙, 앞의 논문, 135~136면.

10) 권도경, 앞의 논문, 280면.

11)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5면.

- ⑤ 아이를 어렵게 죽인다(아이가 스스로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⑥ 아이가 죽자 용마가 울다가 사라진다.

아기에게 벌어지는 특이한 일은, 천정에 붙어 있거나 시렁에 올라가 있고, 먼 길을 날아서 순식간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체로 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확인해 봤더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더라는 내용이 뒤를 잇는다. 뛰어난 능력은 곧 역적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어 두려움을 느낀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아이가 죽지 않았고, 결국 더 과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이가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어 비로소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아이의 죽음과 함께 어디선가 나타난 용마가 울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줄거리의 근간이다.

확장형은 기본형의 구조와 의미를 모두 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특이한 일을 계기로 뛰어난 능력이 확인되고,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죽임을 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이지는 않고 비밀을 발설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죽음에 관여한다는 점, 용마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신 구체적인 적대 세력이 관군(혹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점, 곡물 모티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이 새롭게 작품에 첨부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전체 서사를 확장시키고 있다.

#### B. <아기장수> 전설의 확장형

- ①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 ②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 ③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한다.
- ④ 아이가 위태로움을 알고(혹은 죽음을 맞아) 어머니에게 곡물을 청한다.
- ⑤ 아이가 특별한 곳으로 떠난다(묻힌다).
- ⑥ 관군이 와서 아이를 찾는다.
- ⑦ 어머니가 발설하여 관군이 아이를 찾아낸다.
- ⑧ 아이가 장수가 되고 곡물이 군사가 되어 막 일어서려는 것을 죽인다.

서사가 확장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아기장수의 이주이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동일한 서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 혹은 그에 준하는 서사 단락이 아기장수의 이주를 계기로 두 차례 반복된다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의 죽음은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죽음을 피하는 행위 등으로 간접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대신 두 번째의 죽음은 어머니의 발설과 장수가 되어 막 일어서려는 시점을 강조하여 안타까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본형에 반복 구조를 더하고, 갈등을 더 강화하여 서사성을 풍부하게 갖춘 유형이 확장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본형이 구술문화적 전설의 기본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확장형은 이야기적 흥미가 강화된 서사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두 유형 모두 신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박혁거세신화>나 <주몽신화>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연원을 신화의 시대까지 소급할 가능성이 높다.<sup>12)</sup> 만약 그렇다면, <주몽신화>와 같은 작품이 그러한 것처럼 <아기장수>도 작품 자체의 전승보다는 추상화된 이야기스키마<sup>13)</sup>의 전승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영웅의 일대기’라는 보편적인 이야기스키마가 전승되면서 다양한 현실적 맥락과 결합하여 실제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아기장수>도 전형적인 이야기의 틀로 전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변이형이 더 존재하고, 심지어는 아기장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성공을 거두는 유형까지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아기장수> 스키마가 다양한 현실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도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저(정세규)의 집은 본현(선천) 수청면 안산리 깨골에 있습니다. 예전에 중형수가 처음 잉태하여 열 달 후 어느 해 정월에 괴물을 낳으니 고깃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저의 형수는 이 흉물을 낳고서 남보기 부끄러워 벗집 쌓아둔 데 두었다가 파묻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아이를 낳되 울음소리가 없고 또한 흔적이 없음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장군이 났구나. 그래서 낳자마자 사라져 흔적이 없구나.” 하

12) 천혜숙, 앞의 논문, 137면.

13) 이야기스키마(story schema)란 전형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경험적 사전 지식(prior knowledges)을 말한다(Murray Singer, 정길정·연준흠 역, 『언어심리학』, 한국문화사, 1994, 213면).

**였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 이십 삼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촌인의 허황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지금 50여 년 뒤에 이르러 훗적이 허튼 소리를 만들어 냈습니다.<sup>14)</sup>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기록인 『관서평란록』의 일부이다. 아이를 낳았으며 흔적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장군이 났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스키마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야기스키마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틀로 작동하는데,<sup>15)</sup> 현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도 유효한 인식의 틀이 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의 인과관계를 이야기적인 지식을 통해서 메우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로부터 연유된 추상화된 지식의 틀이다. 예를 들면, <아기장수> 전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 출생’ - ‘뛰어난 능력(장군)’ - ‘살해’라는 이야기 스키마를 형성했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흔적도 없다는 현실의 이야기를 접하고서 ‘장군이 났구나’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연원이 오래고 시대적으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아기장수> 전설의 경우, 스키마의 형태로 현실의 맥락과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를 궁구하려고 한다면, 특화되어 있는 전설의 개별 작품보다는 보편적인 스키마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과 확장형을 두루 결합하여 스키마의 형태로 이야기를 추상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C. <아기장수> 스키마

- ① 평범한 가정 - ② 아이 출생 - ③ 뛰어난 능력 - ④ 살해(죽음) -
- ⑤ 이주 - ⑥ 추적자의 도래 - ⑦ 탄로 - ⑧ 살해(죽음)

추상화의 수준을 높여 이야기의 핵심을 간추려 놓았지만, 사실 스키마로서는 ①-④까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설의 기본적인

14)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239면에서 재인용.

15) Muriel K. Rand, "Story Schema: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Reading Teacher*, Vol. 37, No. 4, 1984, pp.377~382.

특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서 완결된 단형의 스키마로서 손쉽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예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라졌다는 것을 이 스키마를 활성화시켜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즉 장군이 났다는 것으로 추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죽음이 지연되면 추적자가 등장하고 정체나 숨은 곳이 탄로 나는 등의 서사 요소가 추가되어 확장된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⑤-⑧의 스키마도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가 이주하여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어서 추적자가 도래할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체가 탄로 날 것이며 살해의 위협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 2. <마녀>와의 비교

영화 <마녀>는 2018년에 개봉된 박훈정 감독의 미스터리 액션물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살인마로 태어난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날 밤 특수 시설에서 닥터 백과 미스터 최가 아이들을 죽인다.
- ② 피투성이의 한 아이가 도망쳐 충청도의 어느 시골 외딴 목장 앞에 쓰러지는데, 목장 주인인 구선생이 아이를 발견하고 거둔다.
- ③ 10년 후, 아이는 구자윤이라는 이름으로 다재다능한 고등학생이 되어 살아간다.
- ④ 소값이 폭락해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양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 ⑤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절친 도명희의 추천으로 상금 5억이 걸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한다.
- ⑥ 오디션에서 개인기로 마술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을 TV로 본 양부모가 걱정한다.
- ⑦ 오디션을 위해 상경하는 기차에서 만난 귀공자가 자윤에게 아는 체를 하는데, 자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 ⑧ TV에서 마술을 선보이는 자윤을 닥터 백과 미스터 최가 알아보고 특수 시설로 데려가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
- ⑨ 원인 불명의 뇌 질환으로 2-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윤은 2차 오디션

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극심한 두통을 느낀다.

- ⑩ 닥터 백이 보낸 혐상곳은 사내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기차역에 내려 버스를 기다리던 중 다시 귀공자를 만난다.
- ⑪ 양부모를 위협하는 귀공자의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양부모는 무사했다.
- ⑫ 양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자윤도 알아보지 못한다.
- ⑬ 밤에 닥터 백이 보낸 성사장 일행이 침입하여 자윤의 친구를 위협하자 자윤이 갑자기 돌변하여 괴한들을 모두 죽인다.
- ⑭ 이때 귀공자가 나타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자윤을 특수 시설로 데리고 간다.
- ⑮ 특수 시설에서 닥터 백이 자윤에게 10년 전 시설에서 있었던 유전자 조작 아이들의 살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살인마로 유전자 조작된 아이들을 상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죽였고 자윤은 이를 피해 도망쳤다.)
- ⑯ 닥터 백이 주사를 놓아주어 자윤의 뇌 질환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자, 자윤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한다.(자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뇌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뇌 활용을 최소화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에 이르자 닥터 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TV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 ⑰ 귀공자 일행과 미스터 최 일행이 자윤과 일대 혈투를 벌이는데, 중국에는 자윤이 승리한다.
- ⑱ 자윤이 뇌 질환 주사제를 확보하여 시설에서 나온다.
- ⑲ 양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 양어머니를 위해 주사제를 건네고 다시 길을 떠난다.
- ⑳ 3개월 후 제주도, 닥터 백의 쌍둥이 동생 앞에 자윤이 나타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일단 <마녀>는 작품의 핵심적인 인물 구도가 <아기장수>와 비슷하다. <아기장수>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기가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어머니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이주한 곳이 발설되어 죽음에 이른다. <마녀>에서는 닥터 백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구자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죽이려 한다. 닥터 백이 구자윤을 죽이려 하는 것

은 상부(본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이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통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죽이는 주체가 아기의 어머니거나 어머니에 준하는 존재<sup>16)</sup>라는 점에서 둘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즉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장수>	영화 <마녀>
장수(능력자)	아기장수	구자윤
두려움의 주체	어머니	닥터 백
권력자	관군(나라)	상부(본사)

기본 구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스토리의 전개에서도 두 작품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앞에서 제시했던 <아기장수> 스키마와 <마녀>의 스토리를 단락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장수> 스키마	영화 <마녀>
① 평범한 가정	① 특수 시설
② 아이 출생	② 유전자 조작에 의한 출생
③ 뛰어난 능력	③ 살인자로서의 뛰어난 능력 확인
④ 살해(죽음)	④ 두려움과 살해의 시도
⑤ 이주	⑤ 탈출과 이주
⑥ 추적자의 도래	⑥ TV 노출
⑦ 탄로	⑦ 귀공자 등의 접근
⑧ 살해(죽음)	⑧ 죽음의 위협에서 생존

일부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 혹은 탈출을 중심으로 두 차례의 죽음이 반복되는 핵심 구조가 동일하다. 서사의 성격이나 매체의 특성이 전혀 다름에

16) 닥터 백은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구자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머니에 준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영화 <마녀>가 <아기장수>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기장수> 전설과 영화 <마녀>가 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스키마의 작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기장수>와 영화 <마녀>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평범한 가정 / 특수 시설

아기의 출신은 <아기장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는 성공한 영웅에 비해서 평범한(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논리의 근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토리상에서는 대체로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마녀>에서는 아기가 특수 시설에서 태어나고 길러진다. 여기서 특수 시설은 은밀히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을 하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두 작품 모두 출신 성분이나 장소가 주인공(아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아이 출생 / 유전자 조작에 의한 출생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신성한 존재에게 빌어서 낳거나, 명당을 쓰거나 좋은 꿈을 꾸고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신조출생(神助出生)이다.<sup>17)</sup> 신의 도움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맞게 대응하면 <마녀>에서와 같이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아기장수>에서 잉태나 출생 과정에서의 비정상성으로는, 과부가 지렁이와 교통해서 아기장수를 낳았다거나, 땃줄이 잘리지 않아 억새풀로 잘랐다거나, 낳고 보니 상체만 있다거나 하는 등이다. 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녀>에서는 은밀한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고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이 이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17) 최래옥, 앞의 논문, 125면.

### ③ 뛰어난 능력 / 살인자로서의 뛰어난 능력 확인

<아기장수>에서의 특별한 능력은 공중 부양인 경우가 가장 많다. 천정 위에 올라가 있거나 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먼 거리를 순식간에 다녀오는 능력이나 지적인 언어 대응 능력(아기를 업고 눈에 모를 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난해한 질문을 하자, 뜻밖에도 아기가 대답함) 등도 중요하게 제시된다. <마녀>에서도 빠름을 중요하게 다룬다. 빠름은 집에 쳐들어온 성사장 일행을 순식간에 죽이면서도 드러나지만, 귀공자와의 대결에서 절정에 이른다. 귀공자가 꽤 많이 빨라졌지만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적인 대사로 표현하고 있다.<sup>18)</sup>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화살을 멈추게 하는 능력, 물건을 분해하여 재조직하거나 공중에 부양시키는 능력 등이 소개된다. 뛰어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방면에서도 뛰어나다. 그다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전교 1등을 하고 예체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아기장수>에서 아기의 핵심적 특징이 초월적인 뛰어난 능력에 있는 것처럼, <마녀>에서도 아이의 초월적인 능력은 캐릭터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아기장수>에서 뛰어난 능력을 겨드랑이의 날개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마녀>에서도 구자윤의 능력을 성사장 일행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 <아기장수>에서 겨드랑이의 날개를 확인하고 분위기가 전환되어 아기를 죽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녀>에서도 구자윤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하면서 집안이 시체로 뒤덮이고 귀공자와 함께 위협해 보이는 특수 시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렇듯 뛰어난 능력의 확인이 서사의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유사하다.

### ④ 살해(죽음) / 두려움과 살해의 시도

<아기장수>에서는 역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기장수를 죽이는 결정을 유도한다. <마녀>에서는 이것을 통제 불능으로 설명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뇌 활동이 무척 우수한 아기

18) 구자윤: 알잖아. 너하고 난 레벨이 달라. 느리네, 여전하.

를 탄생시켰지만, 이 아이들이 통제의 틀을 벗어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국 아이들을 죽이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미스터 최의 입을 통해서 ‘괴물’이라는 표현으로 잘 갈무리되어 있다.<sup>19)</sup> 이는 뛰어난 능력이 제도권의 틀에서 벗어나면 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사유 방식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이가 ‘영웅’이 되는 것과 ‘역적(괴물)’이 되는 것은 통제가 작동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아기장수> 기본형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아기가 쉽게 죽지 않는다. 결국 좀 더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죽이거나 아기 스스로 죽는 방법을 알려줘서 비로소 죽일 수 있게 된다. 벚섬 혹은 멧돌을 더 많이 올려놓거나 거드랑이의 날개를 찢히고 그곳을 겨름으로 찢러서야 비로소 아기를 죽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굴절은 단순한 구조를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비장미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마녀>에서도 비슷한 서사의 굴절을 만날 수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살인마로 길러진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수법이 무척 잔인하다. 살인이 자행되던 날 특수 시설은 유혈이 낭자했다. 죽음을 모면한 어린 자운 역시 온몸이 피로 흥건할 정도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른 곳은 훼손이 되어도 곧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죽일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sup>20)</sup> 특별한 약점을 찾아서 죽여야만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녀>는 <아기장수>와 비슷하다.

##### ⑤ 이주 / 탈출과 이주

죽음에 직면한 아기는 이주를 결심한다. <아기장수>에서는 죽음으로부터 피신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1차로 죽임을 당하여 무덤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재생을 준비한다. <마녀>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탈출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닥터 백과 미스터 최가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뇌 활동이 심하여 머리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19) 미스터 최: 개는 괴물이에요요, 괴물. 아시잖아요. 통제 못해요. 통제 안 돼요. 통제될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두면 안 돼요.

20) 닥터 백: 미스터 최! 머리, 머리를 날려!

그러니 구자윤이 특수 시설에서 탈출하여 양부모의 집으로 이동한 것은 <아기장수>에서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묻히는 것과 유사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아기장수>에서 무덤이나 바위 등 이주한 공간이 아기장수를 재생시키거나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장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녀>에서 양부모의 집은 괴물에서 구자윤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공간이다. 인적이 드물고, 친척도 거의 없어 사람의 발길이 드문 한적한 시골의 목장은 재생에 최적의 공간인 셈이다. <아기장수> 일부 각편에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이주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아기장수>에서 재생의 모습은 우투리 혹은 반쪽이 유형에서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상체나 반쪽만으로 태어난 우투리가 뒷산 바위 속에서 백일 만에 무릎을 꿇고 일어날 수 있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sup>21)</sup> <마녀>에서는 살인마 괴물로 태어난 아기가 한적한 시골 마을 양부모의 집에서 모범 여고생인 구자윤으로 거듭난다. <마녀>에서의 재생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가능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뇌를 사용할 경우 뇌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뇌의 활동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귀공자가 설명하듯이,<sup>22)</sup> 맨날 농장 일에 집안일에 친구랑 붙어 다니면서도 뭐든 잘하는 모범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 조절의 과정은 <아기장수>에서도 나타난다. 아기장수의 비범성을 숨기기 위해서 세 살이 되어도 걷지도 않고 병어리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sup>23)</sup> 날개를 잘라서 힘을 빼는 경우도 있다.<sup>24)</sup> 오찰방과 김통정은 부모가 아기의 비범성을 비밀로 해서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이다.<sup>25)</sup> 비범한 능력을 숨기고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는 <아기장수>와 <마녀>가 비슷한 재생

21) <반조가리 아기장수>(『한국구비문학대계』 8-14, 216면)

22) 귀공자: 잘 들어봐. 맨날 농장 일에 집안일에 아님 맨날 너랑 붙어다니는데, 너 제 언제 공부한 거 본 적 있어? 없지? 근데 맨날 전교 1, 2등 하지. 아니 전교가 뭐야. 전국에서 놀지. 제 맘만 먹으면 맨날 전국에서 놀걸.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안 그런 거지. 나를 조절한 게 그 정도라고. 또 다른 건 어때?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연기 아까 연기 잘라 잘해. 외국어든 뭐든, 한 번 보고 들을 못하는 게 없다고.

23) <장수바위>(『한국구비문학대계』 8-1, 204면)

24) <효심으로 날개를 떼어 버린 장수>(『한국구비문학대계』 3-3, 43면)

25) <오찰방>; <김통정 장군>(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72면, 94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⑥ 추적자의 도래 / 귀공자 등의 접근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관군이 도래하는데, <마녀>에서는 그 역할을 귀공자와 성사장 일행이 맡고 있다. 물론 <아기장수>에서는 아기를 죽이고, <마녀>에서는 사로잡아 특수 시설로 데려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구자운을 찾아 죽여 없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마녀>에서는 구자운이 특수 시설에서 탈출한 아기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는 스토리가<sup>26)</sup>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 ⑦ 탄로 / 노출

<아기장수>에서 아기장수가 이주한 곳을 알아내는 것이 서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듯이, <마녀>에서 탈출한 아기가 멀쩡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서사적으로 중요하다. <아기장수>에서는 발설을 어머니가 하는데 반해, <마녀>에서는 구자운이 TV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킨다. TV 프로그램에서 개인기를 보여 달라는 요청에 마이크를 공중에 부양시켜서 닥터 백에게 포착된다. <아기장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있던 아기가 지나가던 장군이 무심코 던진 수수께끼 같은 말에 지혜롭게 대답함으로써 스스로 아기장수임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결국 두 작품 모두 발설과 노출을 계기로 해서 추적자들이 주인공의 재생 공간으로 쳐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모티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⑧ 살해(죽음) / 죽음의 위험에서 생존

구조적인 차원에서 두 작품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아기장수>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군에 의해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마녀>에서는 구자운이

26) 귀공자가 기차에서 구자운 일행을 만나 구자운의 정체를 확인하는 장면과 성사장 일행이 밤에 구자운의 집에 찾아와서 정체를 묻는 장면이다.

혈혈단신으로 특수 시설에 들어가 살아서 돌아온다. 하지만 <아기장수>에 서도 어려서 죽지 않고 성장하는 변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아기장수> 스키마의 서사적 진폭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sup>27)</sup> 다만, 구자운이 특수 시설로 찾아가서 그곳을 파괴하는 과정이, 관군이 재생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아기를 죽이는 과정과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아기장수> 스키마의 범주 내에서 <마녀>의 스토리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녀>가 <아기장수> 전설을 염두에 두고 재창작한 작품이냐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아기장수> 스키마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창조하려고 했을 때, 이전의 이름난 장수들 이야기에서 그러한 것처럼,<sup>28)</sup>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III. <마녀>의 전복적 사유와 <아기장수>

영화 <마녀>의 메인 포스터를 보면, 핵심 카피로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영화 <마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의 방향과 어긋나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토리 전개에서 반전 등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 캐릭터의 설정이나 인물의 관계 등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전복으로 느껴질 수 있으려면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의 틀이 이야기의 전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기존의 이야기들이 개입될 수 있다.

27)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210면.

28) 천혜숙, 앞의 논문, 147면.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녀 이야기’나 <프랑켄슈타인>류의 ‘괴물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sup>29)</sup>, 여기에서는 <아기장수> 스키마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물 구도나 이야기의 흐름에서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 이야기문화의 중요한 스키마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영화 <마녀>가 이야기적인 전복을 품고 있다면 <아기장수> 서사의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여성 주인공

첫 번째의 전복은 주인공이 여자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sup>30)</sup> 액션물에서 여성 주인공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아기장수>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여자 주인공의 등장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 <마녀>에서 여성 주인공의 등장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남성 주인공에 대한 일종의 전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복이 시도된 걸까.

<아기장수> 전설에서 문제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반여성성이다. 확장형의 경우, 아기장수가 어머니께 일정량의 곡물을 달라고 할 때, 한 알을 실수로

29) 박훈정 감독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 ‘마녀’라는 영화 제목은 단어가 갖고 있는 모순성 때문에 채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녀 이야기’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프랑켄슈타인>은 감독이 언급한 것처럼 스토리의 전개에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닥터 백과 구자윤의 관계는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관계와 동일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다만, <마녀>의 후반부 서사가 <프랑켄슈타인>보다는 <아기장수>에 더 가깝고, 주인공이 아이 캐릭터로 그려지면서 오히려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기장수>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30) 박훈정 감독은 여성 원톱 영화로 기획한 이유에 대해, “예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엮는 느낌의 인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에 여성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

빠트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기장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아기장수가 이주한 곳을 발설하여 관군이 아기장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아기장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어머니가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정형화된 표현을 작품의 표면에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마녀>는 오히려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러한 <아기장수>의 반여성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성 영웅 대 여성 어머니의 구도에서 남성 영웅을 여성으로 치환함으로써 남녀의 대립 구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녀 대립 구도의 무력화는 구자윤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형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구자윤은 여고생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여성성을 거의 표출하지 않는다. 사료를 외상으로 구하기 위해서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한다든지, 미성년자임에도 불법적으로 트럭을 운전한다든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장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선머슴과 같은 캐릭터에 가깝다. 결국 구자윤은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남성 캐릭터를 덧씌움으로써,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조를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구 사회의 ‘마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녀’ 이미지는 작품의 제목으로 내걸 정도로 중요하지만, 실상 작품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괴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마녀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대사에 서나 등장한다.

양아버지: 니가 뭘로 태어났든. 우린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깐. 니가 좀 자라고 한참 소들이 죽고, 개들도 죽고, 니 고 요상한 능력에 정말 어서 마녀 새끼를 데려다 키운 게 아닌가 싶어 나 솔직히 좀 무서웠다. 후회했어.

뛰어난 능력을 지녔는데,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가축을 죽이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펼쳐져서 마녀가 아닐까 의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부모에게 무서움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니 <아기장수>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마녀’가 종교적 주류 권력이 반대 세력을 이단으로 몰아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sup>31)</sup> ‘마

녀' 이미지와 <아기장수>는 비슷한 정치적인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마녀' 이미지 중에서 핵심은 마술인데, 마녀가 흔히 보여주는 마술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고 보면, 능력 면에서도 마녀와 아기장수는 많이 닮아있다. 뿐만 아니라 마녀사냥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반여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sup>32)</sup> <아기장수> 서사는 '마녀'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결과적으로, 영화 <마녀>는 마녀 이미지에 투사된 구자윤이라는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아기장수>가 보여주었던 반여성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성별은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여성 캐릭터가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마녀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악한 마녀가 아닌 구자윤을 통해, 부조리나 비극의 책임을 여성에게 물었던 우리의 익숙한 스키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 2. 양어머니의 선택

<아기장수>에서 어머니는 양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기장수가 요청한 일정량의 곡물을 구해주는 것은 아기장수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물론 곡물 한 알을 빠뜨려서 아기장수를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지만, 유화가 오곡의 씨앗을 주어서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것과 유사하게 군사로 변할 곡물을 구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아기장수를 죽이거나, 숨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아기장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기장수를 해치는 역할이다. 자식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폭력적인 모성으로 작품의 비극성을 한껏 고조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약하게 제시되고, 해치는 행위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기장수> 전설의 특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기장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역할이다.

<마녀>에서는 <아기장수> 서사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양가적 성격을

31) 주경철, 『마녀-서구 문명은 왜 마녀를 필요로 했는가』, 생각의힘, 2016, 306면.

32) 위의 책, 192면.

서로 다른 두 캐릭터로 분화시켰다. 우선 어머니의 부정적 역할을 닥터 백이 맡고 있다. 사실 닥터 백은 뇌 분야의 절대 권위자로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원이 태어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머니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후에 뇌를 활성화하여 더욱 능력이 뛰어나게 성장시키는 것도 양육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이다. 실제로 닥터 백은 특수 시설에서 구자윤과 해우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구자윤: 대체 당신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닥터 백: 재 말하는 것 좀 봐? 무슨 짓? 너 그렇게 말하면 꽤 섭섭하다?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특별한 능력까지 갖게 해 줬으면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안 그래? **애! 내가 널 만들었다고 너한테 내가 엄마야, 엄마!**

닥터 백이 스토리상에서 실질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닥터 백이 구자윤을 죽이려 한다는 점이다. 핵심은 두려움 때문이다. 구자윤과 같은 살인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더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이에 닥터 백은 미스터 최 등을 시켜서 구자윤을 포함한 특수 시설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보면 닥터 백은 <아기장수>에서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키는 분할된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양어머니는 구자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양어머니도 구자윤의 범상치 않은 능력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아기장수>의 어머니나 <마녀>의 닥터 백이 갖는 두려움과는 성격이 다르다.

양어머니: 엄만 무섭다. 엄마가 얘기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지랑 다른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고 응? 혹시 니가 우리를 떠나게 될까 봐 겁나.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두려움의 성격이 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원이 자신의 걸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양어머니

는 구자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특수 시설을 파괴하고 돌아온 자윤에게 양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작품의 말미에 제시된 또 하나의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양아버지 : 널 거두는 게 아닌데. 어디로 보낼 수만 있음 보내고도 싶었어. 근데 니 엄마가 절대 안된다고 니가 아직 애라 그런다고. 애들 다 그런다고.  
 응. 우리가 이빠라 이빠라 키우면 이쁜 애가 된다고

양아버지는 두려움 때문에 자윤을 버리려고 했지만 양어머니가 반대한다. 양어머니는 자윤이 아무리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쁘게 키우면 충분히 예쁜 아이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들의 집을 재생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자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어머니의 역할은 <아기장수>의 어머니가 갖는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일종의 전복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양어머니를 구자윤이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다. 우선 구자윤은 자신이 탈출해서 몸을 의탁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최선의 장소와 가정을 찾은 결과가 양부모의 집이다. 이는 귀공자의 말을 통해서 잘 표현되었다.

귀공자: 야 아주 기가 막히게 골랐다. 응, 다 늙은 노친네 부부. 게다가 아들과 어린 손자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귀국한, 그리고 시골로 내려온 재미교포 출신의 건축가 인텔리 부부. 완벽하네. 그 전부터 고르고 골랐을 거야. 그지? 이 노친네들이라면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한 거지. 누가 봐도 넌 사랑스런 애였을 테니까.

양부모 캐릭터의 두 가지 요소를 잘 짚고 있다. 첫째, 아들과 어린 손자를 하늘로 떠나보냈다는 것이다. 아들과 어린 손자를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다. <아기장수>의 변이형에는 아기가 죽지 않고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식을 계속해서 죽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장수는 죽이지 않고 정성으로 키우게 됐다고 했다.<sup>33)</sup> 즉, 이전에 자식을 잃은

상실감이 비범한 능력을 지닌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이다.

둘째, 시골로 내려온 재미교포 출신의 인텔리 부부라는 것이다. <아기장수>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기장수가 죽임을 당하는 요인으로 능력과 신분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sup>34)</sup>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난 능력자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비천한 혈통의 능력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자윤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혈통과 만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텔리 부부라는 것이다. 또한 시골로 내려온 재미교포라는 것도 중요하다. 즉 공동체에서는 외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데올로기는 <아기장수>에서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이도록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구자윤은 주도면밀하게 자신이 의탁할 장소를 선택한 셈인데, 그 주도면밀함이 양어머니가 자원을 버리거나 죽이지 않고 ‘이빠라’ 하면서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요컨대 <아기장수>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양가적인 성격을 두 캐릭터로 분화시킴으로써 어머니 캐릭터가 갖는 모순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의한 자식살해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구자윤의 주도면밀함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양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기장수>와는 결을 달리했다.

### 3. 의도적 노출과 생존

전통적인 스키마를 활용한 작품들에서는 대개 반전이 중요한 서사 효과를 낸다.<sup>35)</sup> <마녀>에서도 반전은 작품 이해의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마녀>에서 가장 큰 반전은 구자윤과 닥터 백의 대면 장면에서 드러난다.

33) 최래욱, 앞의 논문, 127면.

34)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56면.

35) <장화홍련전>을 스키마로 활용한 영화 <장화, 홍련>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심우장, 『유아살해서사의 전통과 영화 <장화, 홍련>』, 『문학치료연구』 제31집, 한국문화치료학회, 2014).

구자윤: 와, 진짜 반가워요, 박사님! 정말 너무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닥터 백: 너?

구자윤: 당연하죠! 난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나처럼 머리 좋은 애가 그걸 잊었어요? 살면서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끔찍했던 기억을. 내가 어떻게 잊었어요, 안 그래요?

닥터 백: 그럼? 처음부터 니가 날?

구자윤: 그럼요. 저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박사님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긴 했지만,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덩동댕! 당신이 날 찾아오게 한 거.

닥터 백 : 어우 이런 영악한 년!

<아기장수>에서는 장군이냐 관군이냐 아기장수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 아기장수를 죽인다. 어머니의 발설이 없었으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기장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무덤이나 바위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기장수> 스키마에 기대서 작품을 이해하면, 우리는 구자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닥터 백 일당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마술을 계기로 숨어 있던 곳이 탄로 나서 결국 특수 시설로 잡혀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구자윤이 설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반전은 ‘추적자의 도래 - 탄로 - 살해’로 이어지는 <아기장수> 스키마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다.

사실 <아기장수>에서 아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sup>36)</sup> 부모가 자신을 죽이려 해도 별다른 저항이 없다. 심지어는 스스로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한다. 물론 일정량의 곡식을 달라고 하고, 이 주한 곳을 비밀로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탁일 뿐이다. 1차 죽음이나 2차 죽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또한 장수로의 성장에도 아기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재생을 위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수로 거듭날 뿐이다. 결국 아기장수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아기장수에

36) 김영희, 앞의 논문, 39면.

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래에 또 다른 아기장수를 기대하는 심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마녀>에서는 이러한 아기장수의 전복이라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한다. 구자윤은 줄기차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1차 죽음에 해당하는 특수 시설에서의 아기 학살 때에도 구자윤은 스스로 닥터 백 일당을 물리치고 살아서 도망친다.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는 아기장수의 모습과는 무척 다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양부모의 집에서 재생하는 과정에서도 능동성은 강조된다. 뇌 활동을 조절해서 평범한 여고생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양어머니와 고생하는 양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주체성과 능동성의 연장선상에서 반전이 마련되었다.

양부모의 집에서 재생을 피했던 구자윤이 닥터 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뇌 활동의 부작용 때문이다. 뇌 활동을 조절하여 가까스로 평범한 여고생의 삶에 적응하기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부작용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친부모를 찾아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구자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그냥 구자윤으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닥터 백을 찾아서 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자윤은 아기장수와 다르게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전형적인 스키마로부터 일탈하게 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마녀>와 <아기장수> 스키마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끝내 구자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물론 <아기장수> 전설에서도 살아남은 아기장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녀>에서 구자윤이 살아남은 것은 구자윤의 의지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구자윤은 아기장수처럼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다.

귀공자: 구자윤이라, 구자윤. 이젠 다시 못 돌아갈 텐데. 너 계속 그러고 살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같은 그냥 구자윤으로 죽었을 거야.

구자윤: 아니, 난 살 거야. 구자윤으로 계속 살 거라고.

귀공자가 자기라면 구자윤으로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장수> 스키마에 따른 자연스런 결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구자윤은 이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한다. 절대 죽지 않고 계속 살 거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녀>는 <아기장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후의 서사는 이러한 전복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미스터 최나 귀공자를 비롯한 닥터 백 일당을 모두 물리치고, 특수 시설을 파괴한 후, 살아서 돌아온다.

<마녀>에서 구자윤이 생존한 것은 이렇게 아기장수와 같은 방식의 운명을 거부한 것이었다. 파괴적인 유전자와 뇌 활동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구자윤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 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구자윤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귀공자: 따라와, 아님 저 노친네들이랑 저년이랑 이 동네 너 아는 인간들 썩다 죽이고 끌고 가까? 뭐 그래도 되고. 걱정하지마. 너 좋을 대로 해. 우린 그런 거 전문이거든.

구자윤: (명회를 향해) 다녀올게. 울엄마 아빠 좀 부탁해.

공동체를 걱정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기를 죽이려는 결정을 했던 것이 <아기장수>이다. 하지만 <마녀>에서는 오히려 아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심층적으로는 둘 다 공동체를 위해서 아기가 희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펼쳐내는 방식은 정반대이다. 결국 스스로 선택한 자기희생의 길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뇌 질환에 필요한 약을 구해서는 그것을 대부분 양어머니에게 양보하는 모습에서도 구자윤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이 잘 드러난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수 시설로 들어갔던 구자윤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길을 떠나면서 구자윤은 양아버지께 꼭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공동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요컨대 <아기장수>가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갔다면, <마녀>는 자신의 의지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남았다.

#### IV.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

##### 1.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소환

신화의 시대에 형성된 ‘영웅의 일대기’ 스키마가 그 이후 다양한 서사 창작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아기장수> 서사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은 특정 시대의 특정 국면에서 문제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기장수> 스키마가 결합될 수 있다. 이른바 유명(有名)형 <아기장수> 전설<sup>37)</sup>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아기장수> 서사가 13세기 대몽항쟁기에는 김통정을 만나 비극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sup>38)</sup> 김통정의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결합되면서 <아기장수> 서사의 다양한 요소들이 김통정과 결합하게 되었다. <아기장수> 서사가 여말선초에는 이성계와 만난다.<sup>39)</sup>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오는 격동기에 다양한 능력자들에 대한 기대가 우투리라는 형상으로 갈무리되어 두려움의 주체인 이성계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19세기에는 최제우와 <아기장수> 서사가 만난다.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종교 교주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교의 숭고함을 강조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sup>40)</sup>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뛰어난 능력 즉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시대에 <아기장수> 서사가 특정 인물의 이야기에 결부되어 소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몽항쟁기에는 김통정에게, 여말선초에는 우투리와 이성계에게, 이행기인 19세기 중엽에는 최제우에게 소환된 <아기장수> 서사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비극적 숭고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숭고함은 김통정의 경우는 당신화의 바탕이 될 수 있었고, 우투리의 경우는 이성계에게 전이되어 새로운 왕조의 기반이 될

37) 임철호, 앞의 논문, 218면.

38)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39) 이화영,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0) 조동일, 『동학성립과 이야기』, 홍성사, 1981.

수도 있었으며, 최제우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의 바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비극적인 승고미로 경도되는 것은 아니다. <아기장수> 스키마가 접속하는 현실적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스토리는 변형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길항에 의해서 다양한 현실태들이 탄생할 수 있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하는 가운데, 두려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서사가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기대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의 <부대각> 설화이다. 중앙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의 경우, 기대와 두려움의 길항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41)</sup>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공동체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아기장수> 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될 수 있다. 탁월성에 대한 두려움의 자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기장수의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기대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기장수의 죽음은 지연되거나 축소된다.<sup>42)</sup> <아기장수> 서사의 다양한 변용은 이렇듯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길항 관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바로 여기에서 영화 <마녀>의 위상을 점검해 볼 수 있겠다. <마녀>에 의해서 다시 소환된 <아기장수> 서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형태로 주어진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독특한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탁월성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구자운의 탄생과 연결된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뛰어난 형질을 가진 생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물리지 않는 토마토, 낱알이 많이 열리는 벼,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밀이나 콩 등이 개발되어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는

41) 김규래,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2) 죽음의 지연은 대개 성장해서 입공할 때까지 죽음이 미뤄지는 것을 말하고, 축소는 낱개 등을 소실하여 탁월한 능력이 사라지는 형태로 드러난다.

43) 박훈정 감독은 인터뷰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에 매혹되는 동시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증오했고 두려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

유전자 변형을 통해 광합성 능력을 증대시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인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전자 변형은 분명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공존하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탁월성의 또 다른 실체이다.

유전자 변형에 의한 뛰어난 형질의 구현은 이렇듯 양가적인 성격을 짝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기가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역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뛰어난 형질의 유전자 변형도 이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지만,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의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 탁월성에 대한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은 또 한 번 <아기장수> 서사와 만나게 된다. 이미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담아냈던 스키마가 존재하고 있어서, 여기에 없으면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녀>에서는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유전자 변형의 문제는 어느새 인류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유전자 변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생명체를 죽여 없애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유전자 변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를 없애거나 낱알이 많이 열리는 벼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기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마녀>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구자운을 두 번에 걸쳐 죽이려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양부모 역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자운을 내칠 수 없었다.

두려움이 죽음에 의해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치환됐다. 그것이 바로 ‘병’이다. 구자운과 양어머니가 모두 병에 걸렸다. 양어머니의 치매는 직접적인 원인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자운과 무관하지는 않

을 것이다. 구자윤에게 필요한 약을 어머니에게 투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서일 수 있다. 구자윤의 뇌 질환은 더 심각하다.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병은 죽음을 부른다는 점에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굳이 양어머니에게도 치매라는 뇌 질환을 심어놓은 것은 이 병이 곧 두려움의 치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구자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특별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닥터 백을 찾았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주사약을 구하기도 했다. 이 지점이 이 시대에 탁월성을 발현하는 유전자 변형이 놓인 자리이다. 무수히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탁월성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을 능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탁월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구자윤이 에필로그 장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시대적 상징성이 풍부하다고 하겠다.<sup>44)</sup>

## 2. 포스트휴먼, 괴물과 슈퍼히어로 사이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부분만을 이야기했지만, 최근 들어 인간에게 뛰어난 능력을 부여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목도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다. 로봇은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기계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초월한 상상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과학기술은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인류의 미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욕망이나 그것을 반영한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했던 초월적인 능력이 이제 평범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현장이나 생활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식품은 골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44) 에필로그에서 닥터 백 쌍둥이 동생이 구자윤에게 뇌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주사제를 내밀자 구자윤은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요.”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는 이렇게 인간 앞에 또 다른 형태의 초월적인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장수나 영웅, 종교 지도자에게서나 이따금 발견할 수 있었던 탁월성이 이제는 상시적으로 일상의 수준에까지 침투해 있다. 이전의 탁월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여기에 더해 탁월성의 정도도 무한히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는 인간이 탁월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탁월한 존재가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인류가 실존적 위협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휴머니즘적인 사유 체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sup>45)</sup> 영화 <마녀>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휴머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으로 이해된다.<sup>46)</sup>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이야기로 담아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괴물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대체로 이 괴물은 기존의 공동체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적대시되다가 결국 축출되는 수순을 밟는다. 두려움에 대한 원초적인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다양한 괴물 서사가 탄생했다.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작품은 이른 시기에 현대문명에 의해서 탄생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고, 우리 영화 <괴물>에서도 환경 파괴에 의해 돌연변이로 탄생한 엄청난 힘을 지닌 괴물이 우여곡절 끝에 제거되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슈퍼히어로를 등장시켜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경우이다.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를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어벤져스류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휴머니즘의 세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슈퍼히어로 자체가 포스트휴먼이기도 하다. 당면하는 다양한 인류의 문제들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히어로들이 한데 모여서 전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

45)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46) 박옥주, 『영화 속 포스트휴먼의 욕망: <프랑켄슈타인>부터 <마녀>까지』, 『크리스천투데이』 2018.7.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4085>)

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 <마녀>는 위의 두 가지와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괴물이나 마녀로 부르며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만, 딱히 공동체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고, 결국 제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특수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무모하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 괴물을 생산하는 자들을 징벌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법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살인마를 만들어낸 특수 시설을 파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한 응징일 뿐이었다. 악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슈퍼히어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화 <마녀>는 괴물과 슈퍼히어로의 중간 정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 이렇다면 <아기장수> 역시 오래 전에 제3의 길을 모색했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아기장수> 전설은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좀 특별한 작품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에 대한 전형적인 대응을 담고 있는 <지하국대적퇴치담>이나 <주몽신화>와 같은 작품과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지하국대적퇴치담>이 <프랑켄슈타인>이나 <괴물>과 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생명체를 제거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라면, <주몽신화>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고난 끝에 집단적 가치를 세움으로써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지금의 괴물 서사의 원조라면 후자는 슈퍼히어로 서사의 원조라 하겠다. 하지만 <아기장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대응 방식과는 다른 형태이다. 탁월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죽이기는 하지만, 죽이는 과정이 썩 깔끔하지 않다. 쉽게 죽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죽이는 방법을 아기장수가 스스로 알려주기까지 한다. 악한 괴물을 처치하는 것과는 다른 미감이다. 뿐만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도 두려움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이 더하다. 심지어 아기장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를 탓하는 모습에서는 아기장수의 죽음이 두려움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제3의 길을 추구하려 했던 <마녀>는 ‘영웅의 일대기’나 ‘대적퇴치

담'의 스키마보다는 <아기장수> 스키마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스키마를 변용했다. 첫째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탁월한 능력자가 주체라는 것이다.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주도면밀하게 서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가장 큰 반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둘째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거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자윤은 아기장수와 다르게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공동체와의 공존 가능성을 줄기차게 추구하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에도 양부모나 친구에 의해 거부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어머니는 '이빠라' 키우면 이쁜 애가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면 결국 <마녀>에서 제시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은 공존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sup>47)</sup>

이 지점에서 <아기장수> 전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아기장수> 전설은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서사이다. 표면적인 스토리로 보면 기대는 드러나 있지 않고 두려움에 의해 탁월성이 소거되는 서사로 보이지만, 오히려 소거된 탁월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는 탁월성에 대한 기대가 내재되어 있어서 두려움과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교차를 <마녀>에서는 공존의 논리로 해소하고 있다면, <아기장수>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논리(죽음)로 해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의 교차는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가능한 매우 생산적인 이야기 창작의 원천이다. 특히 탁월성에 대한 다양한 맥락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새로운 서사를 생산하는 데 <아기장수> 스키마를 활용할 여지가 많다.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47) 이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들과 연관시켜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네오-러디칼리즘과 같은 비판주의나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낙관주의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파악하려는 제3의 관점, 즉 인간이 기술을 자신과는 다르지만 대등한 행위자로 간주하면서 서로 결합하여 공동세계를 이루어나갈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김환석, 『우리는 오직 휴먼이었던 적이 없다』, 김환석 외, 『포스트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GIST PRESS, 2017)

## V. 맺음말

<아기장수> 전설은 확실히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 체제 수호적인 귀족영웅과 구별되는 반체제적 영웅으로서, 비록 죽임을 당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회귀하는 저항정신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작품 이면에 존재하는 서사 효과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고 유형군의 차원에서 역사성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작품의 확장적인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때문에 <아기장수>의 현재적 의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기장수> 전설을 탁월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서사로 이해했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두려움이 기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주된 서사의 동력은 기대와 두려움의 교차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영화 <마녀>를 통해서 <아기장수>를 소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와 두려움의 교차 지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의 방패막이 되었던 반여성성을 걷어내고 대신 두려움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기대의 에너지를 돌입했다. 구자운은 아기장수와 다르게 능동적이었고 나아가 영악하기까지 했다. 죽음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존의 논리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대의 탁월성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기장수>에서처럼 소거될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녀>는 <아기장수>라는 이야기 틀에서 보면 익숙한 스키마의 전복과 반전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아기장수>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서사이다. 탁월성이라는 것이 원래 통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질주하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나 두려움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것의 교차 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아기장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선 구자운이 후속작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그 과정에서 <아기장수>가 또 어떤 방식으로 소환될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1. 자료

- <김통정 장군>(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94면).  
<반쫓가리 아기장수>(『한국구비문학대계』 8-14, 216면).  
<오찰방>(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72면).  
<장수바위>(『한국구비문학대계』 8-1, 204면).  
<효심으로 날개를 떼어 버린 장수>(『한국구비문학대계』 3-3, 43면).  
영화 <마녀>(박훈정 감독, 2018).

### 2.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김환석 외, 『포스트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GIST PRESS, 2017.  
조동일, 『동학성립과 이야기』, 홍성사, 1981.  
\_\_\_\_\_,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주경철, 『마녀-서구 문명은 왜 마녀를 필요로 했는가』, 생각의힘, 2016.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Singer, Murray, 정길정·연준흠 역, 『언어심리학』, 한국문화사, 1994.

### 3. 논문

- 강미정, 『<아기장수>의 서사적 특성과 영화 <하이랜더>와의 상관성』,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23~454면.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제163호, 국어국문학회, 2013, 279~313면.  
권태호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151~191면.  
김규래,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227~226면.  
심우장, 『유아살해서사의 전통과 영화 <장화, 홍련>』, 『문학치료연구』 제3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69~100면.

- 이화영,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203~236면.
-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 『구비문학』 제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소, 1981, 1~24면.
- 천혜숙,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제1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6, 133~151면.
-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제11집, 한국민속학회, 1979, 117~161면.
- 황승엽, 「<아기장수> 설화에 나타난 공포와 그 현대적 지속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Rand, Muriel K., “Story Schema: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Reading Teacher*, Vol.37, No.4, 1984, pp.377~382.

#### 4. 기타

- 박옥주, 「영화 속 포스트휴먼의 욕망: <프랑켄슈타인>부터 <마녀>까지」, 『크리스천 투데이』 2018.7.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4085>)
- 장영엽, 「<마녀> 박훈정 감독,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이었다”」, 『씨네21』, 2018.7.5.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576))

On the current significance of *Mighty Baby* seen  
through the movie *The Witch*

Sim, Woo-jang

We reflect on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spirit of resistance in the study of the legend of *Mighty Baby*. This is because this trend has reduced the extended understanding of the legend of *Mighty Baby*. We think this is why research on the current significance of the legend of *Mighty Baby*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myth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Witch* and *Mighty Baby* and tries to find a new meaning of *Mighty Baby* in a wider range. This is because the movie *The Witch* uses the schema of *Mighty Baby* but shows a completely different appearance.

The character structure of *The Witch* is consistent with that of *Mighty Baby*. In both works, there is a triangular structure of a baby with outstanding abilities, a mother who is afraid of the baby's splendor, and a powerful man who tries to kill the baby. In addition, the two works are similar in detail. Unusual things happen before and after birth, and through this, the child's excellent abilities are confirmed. There is a process of moving away from death, and growing into a new person in a special space.

*The Witch* shows the opposite view for *Mighty Baby*. By setting general character to be a woman rather than a man and making the femininity hardly visible, it overthrows the anti-femininity of *Mighty Baby*. The mother character, which has an ambivalent personality, was also divided into two, eliminating the contradictions of the mother character and being free from the burden of murdering the baby by the mother. In addition, Ja-yoon Koo, the protagonist of *The Witch*, acts proactively and subjectively differently from the mighty baby. Ja-yoon Koo makes the biggest reversal by showing a strategy to lure Dr. Baek according to her own needs.

In this way, *The Witch* summoned the *Mighty Baby* schema because of the expectation and fear of another form of excellence faced by our times. *The Witch* mainly deals

with genetic manipulation, but rob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lso raise expectations and fears for excellence. In the face of the so-called posthuman era, *The Witch* attempts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ectations and fears of excellence through the logic of coexistence rather than exclusion or praise. In this sens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chema of *Mighty Baby* will continue to be summoned to create new stories about excellence.

keywords: *Mighty Baby*, *The Witch*, story schema, excellence, anti-femininity, discourse of resistance, posthuman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